

「國際人權의 해」 메시지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나는 1968 年을 「國際人權의 해」로 宣布하게 된 것을 國民 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유엔」總會에서 人類의 平和와 個人의 自由를 위한 世界人權宣言이 採擇된지 20 周年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모든 自由世界國家들은 人間의 尊嚴성과 價値에 대한 信念 위에 世界人權宣言을 實踐에 옮기는 계속적인 貢獻을 해 왔습니다.

政治·文化·社會·歷史의 背景이 다르기는 하지만 人權思想은 널리 啓蒙되어 왔고 憲法을 비롯한 各種 法律制度上으로 國民個人의 尊嚴성과 基本的自由를 保障하는 데 努力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國民의 人權意識이 우리 固有의 歷史的背景 밑에 健實히 發展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政府나 國民이 다 같이 人權의 擁護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國民個人들도 서로의 人權을 尊重함으로써 밝고 健實한 社會를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도 國土分斷으로 因해 1,200 萬 同胞가 共產治下에서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喪失당한채 虐政의 桎梏 속에서 呻吟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同胞에게 人間으로서의 價値와 自由와 平和를 되찾아 주기 위한 온갖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口號로서가 아니라 勤勉한 努力을 통해 共產勢力을 이겨내는 데서만 可能하다는 것을 強調해 두는 바입니다.

모든 人間은 平等하며 그 價値와 尊嚴성이 반드시 保障되어야 한다는 人類의인 意志가 끝끝내 共產主義帳幕을 걷어제치게 될 것을 確信합니다. 眞正한 人權思想이 發展되어 가는데 今年 1 年이 劃期的인 契機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1968年 1月 6日

大統領 朴 正 熙